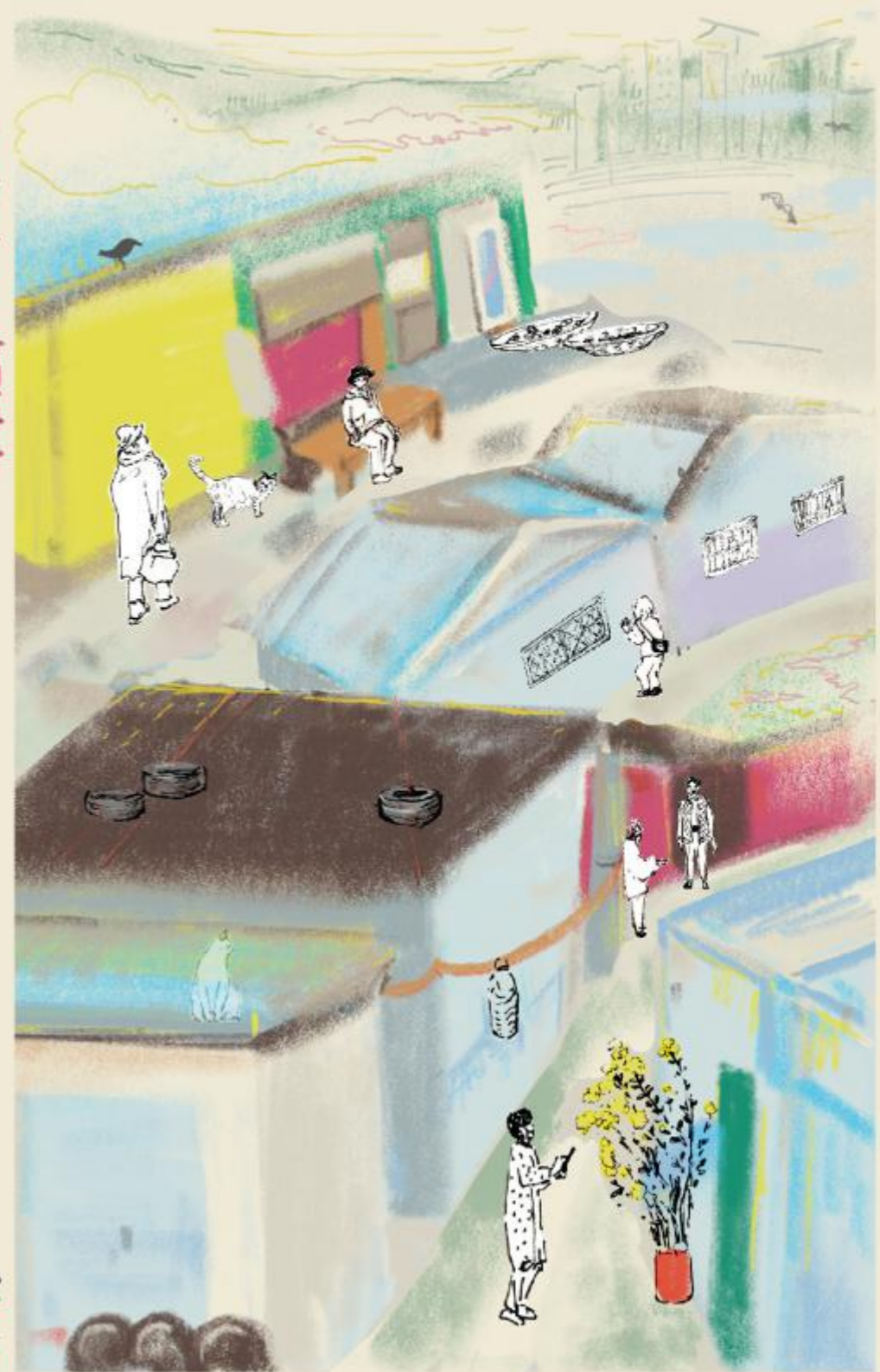


우리마을 사진집 복현타작

비매 품/무료  
03660  
9 791197 401107  
ISBN 979-11-974011-0-7



우리마을 사진집  
**복현타작**

대구광역시북구  
복현동  
동서재정합동사무소

복현타작(他作) :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남기다

# 복현타작

우리마을 사진집

소중한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복현1동 주민들의 이야기

우리는 이곳에서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 순서

- 008 들어가며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을 담다 김은윤 센터장  
피란민촌을 둘러보며 박명희 수필가
- 014 복현타작 이야기
- 016 삶의 무게여 전미희
- 028 복현1동은 현재를 살아간다 이현민
- 040 꿈꾸는 복현1동 장준원
- 052 같이 걸을래? 이주은
- 062 마을의 연결 통로 김슬윌
- 070 기억, 그 길에 서다 최서현
- 080 부서지고 벗겨지고 조민정
- 088 할머니의 미소 김기숙
- 090 부탁드립니다 장화선
- 092 늙은 호박 정정순
- 094 얼마 후면 사라질 피란민촌의 아쉬움 백명숙
- 096 복현타작 뒷이야기 율타쿠나 현숙경 대표
- 106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을 담다  
복현1동 마을기록 사진전
- 114 복현1동을 밝히는 사람들 정호진 작가





##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을 담다

시간이 흐르는 길  
아직도 남아있는 오래된 동네  
북현동 피란민촌을 걸어봅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닫으면 들리지 않는 풍경의 소리가 들립니다.  
채소 트럭 지나가는 소리, 동네 영감님 오토바이 소리,  
철문 삐그덕 대는 소리, 고무 다라이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남아지는 것들이 품은 그리움  
사그라지는 것들의 아련함  
누군가의 손길, 손때, 녹슬고 닳은 것들이  
사진 한 장의 기록으로 남아서 다시 반짝입니다.

바쁜 도시의 삶 속에서  
마을분들이 함께 만든 포토에세이를 열어보며  
같이 여행하듯 이 골목을 걸어 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얼마 가지 않아 여기 오래된 집들과 골목길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마을의 기억, 사람들, 살아온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은은 센터장**  
북현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피란민촌을 둘러보며

살아가기 힘든 그때 우리는 이 골목을 쫓아다니었다.  
타이어가 없히고 돌맹이가 올려진 다닥다닥 붙은 이웃집이 놀이터였다.  
우리는 좋았다. 빛나지 않고 습기가 찼지만  
그곳은 소중한 쉼터였기 때문이다.

정겨운 동네,  
부르튼 손등에 글리세린을 바르던 어머니의 시대가 떠오르고  
배고픔을 술로 달래시던 아버지의 시대도 떠올랐다.  
청춘들은 더 잘 살기를 고민하며 막걸리집에 자주 모이곤 했었다.  
숨 가쁘게 오르던 언덕과 눈이 오면 엉덩방아를 찧던 내리막길도  
그대로 나를 맞이한다.

이제 그것들은 모두 추억이 된다.  
허물어지기 전에 우리들은 그들을 보관하고 싶은 것이다.  
가난한 우리나라 역사가 흐르는 곳,  
비좁은 문과 낮은 지붕이 우리의 집이었던 그곳을  
추억으로 안고 싶은 것이다.  
정이 많은 동네, 햇살이 고이는 곳,  
어설픈 웃음꽃을 피워 내던 마을을 붙잡고 싶은 것이다.

삶의 디딤돌 같았던 마을에 그리움을 품어보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동네가 묻히려고 하여 아쉬운 것이다.

박명희 수필가









## 북현타작 이야기

북현1동의 또 다른 이름 '피란민촌'  
이곳엔 세월 속에 묻어둔 안타까운 사연과  
희미해져 가는 기억들이 곳곳에 쌓여있다.

70년이 훌쩍 흘러버린 피란의 기억을  
치유의 기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리는 북현타작을 시작했다.

북현1동,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자.

북현타작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란민촌을 살피며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담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 함께한 사람들

전미희

이현민

장준원

이주은

김솔잎

최서현

조민정

김기숙

장화선

정정순

백명숙

전미희

## 삶의 무게여

슬레이트 지붕 들성들성 이가 나가고  
피난와 모여 살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고  
남은 자와 함께 더 나이 들어가는 피란민촌









이곳을 들어올 때는  
두터운 믿음이 있었다.  
부지런히 일하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되리라는

한걸 한걸 또 한걸  
지붕은 자꾸만 두터워져 가는데  
기약 없는 믿음은  
얇아져만 가는구나.

지척에선 오늘도 교회 종이 울리네.









이고 지고 고향 떠나와  
짐 풀고 머물렀다.

그러나,  
아직도 지고 이고

무거웠던 그 세월을  
미련 없이 떠날 날을 기다린다.





SNS에서 이외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존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다.  
삶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버텨내야 한다는 걸  
지붕이 바라보는 내게  
이야기 한다.

이현민

## 북현1동은 현재를 살아간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사잇길이다.  
이곳, 피란민촌 마을도 그 풍경 속에서 유명하고 있다.  
다 뜯겨 허물어져가는 벽  
그 위에 고층 건물들

이 둘이 공존한다하여  
어느 하나만 비천하거나 빛이 나는건 아니다.  
재탄생을 기다리는 건물 하나  
이주를 고민하는 길고양이 조차도  
그들의 삶이 곳곳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그러하듯  
북현1동 또한 언제나 반짝일 것이다.





















장준원

## 꿈꾸는 복현 1동

복현 1동 원룸 사이 낡은 기와집은  
주민들의 추억과 세월을 품고 있다.

은행나무 한그루에도 사연이  
화단에 핀 한 송이 꽃에도 꿈이 있다.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아 떠났지만  
빈집은 길고양이의 보금자리로  
마을은 청년이 꿈을 꾸는 장소로 변했다.

복현동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주는

## 같이 걸을래?

높은 건물 뒤로 비치는 햇살을 따라  
동네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네모난 창문 사이로 튀어나온 문틀  
전깃줄에 걸린 옷걸이와 빨래  
주민들이 앉아 노는 색색의 의자들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과  
초록 나뭇잎 사이 탐스럽게 달린 열매  
구불구불 미로 속 골목길을 따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앞으로 바뀔 복현동에 좋은 소식과  
함께 바꾸어 갈 사람을 기다립니다.





















김솔잎

## 마을의 연결 통로

모락모락 방안 온기  
크게 틀어 놓 라디오 소리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소리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야채 파는 트럭 아저씨 소리,  
누구를 부르는 소리 같은  
마을의 이야기가  
창문을 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온 통로, 창문

피란민촌의 창문은  
제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족이 쉴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다고  
손수 벽돌을 창문에 붙이시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직 어린 애기가 벌레에 물릴까  
쭈뼌 방충망을 손수 붙이시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애기 자는데  
물방울이 얼굴을 적실까  
햇별이 눈을 부시게 할까  
창문에 모자를 씌웠네



애기는 다 커서  
집을 떠났지만  
나와 창문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네





최서현

## 기억, 그 길에 서다

나와 타인의 삶이  
한 공간에 머무른 아주 좁은 길  
그러나 살아온 세월만큼 넓게 퍼진 인연(因緣)

어느 누군가는 핑크색 또는 노란색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길

그 길에서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을 담아본다.

















조민정

## 부서지고 벗겨지고

사진 찍으러 작은 구역을 여러 번 돌아다녔다.  
찍을 때마다 새롭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도 아프다.  
이런 모습을 스무살 청춘 시작할 때 봉사하며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하도 오래되어 까먹고 살았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보니 그 자리에서 평생을 버텼다.  
다른 세상은 쭉쭉 올라가는데 내 집은 그대로인 걸 모르고..

도시의 법칙을 모른채 피난민들은 그렇게 살다가 간다.  
흠으로 돌아간다.



저 길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노란 벽이 선배일까 썩은 길이 선배일까?





다른 줄 알았는데  
어차피 이 집, 저 집 다 똑같네.

우리 인간처럼  
이 인간, 저 인간 어차피 똑같으면서  
서로 잘난 체 하네.



기와집 위에는 기와들이 산다.  
얹혀산다. 기생 기와일까? 아니 공생한다.  
사촌이자, 새끼이자, 알까기이다.  
즉 너와 나는 하나다.



지붕과 벽이 무너지기 전부터  
 사람이 살 때부터 저 자리에 있는 듯  
 풍채 좋게 때깔 좋게 유유히 서 있네.  
 주인은 어디 간 걸까?



저 그림은 웬 건가  
 누구 보라고 붙여놨나

주민을 위한 쟀가  
 외지투자자를 위한 쟀가

우리 눈엔 저게 멀로 보인다고 생각하냐



대문 앞  
뭔가 허전하다.  
화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각보다는  
둥그란 모양이 어떨까?  
큰 것도 바라지 않는다.

작은 반달 화단.



집으로 가는 문은  
비탈길 언덕 옆에 있어  
높다네.

높으면  
반으로 낮추면 되니,  
발판을 만들자.

전신 거울도 붙이고.

이게 바로  
야외 현관일세.



김기숙

## 할머니의 미소

60-70년 대의 고향 시골 모습 그대로  
발전이 없어 보인다.

21세기 디지털시대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실이 좀 안쓰럽다.

그러나 몇 년 뒤면 도시재생이란 뉴딜사업으로  
산뜻하게 임대아파트로 다시 태어난다.

활짝 웃으시는 할머니  
나도 함께 마음이 벅차다.





장화선

## 부락합니다

지붕을 고치는 아저씨  
비 세지 않게 단단히 고쳐주세요.

정이든 피란민촌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정정순

## 늙은 호박

늙은 호박처럼 익어버린 마을

이 동네 나이에 내 나이 실감나네!  
프로그램 같이 한 내 친구도  
저 호박처럼 많이 익어가겠지





백명숙

## 얼마 후면 사라질 피란민촌의 아쉬움

내 생애의 반평생을 살아온 동네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이곳에  
어떤 변수가 생길까?

아쉬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 복현타작 뒷이야기

사람들은 간혹 시간여행을 꿈꿉니다.

흘러간 시간이 그리워서  
우리의 미래가 궁금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이 아니라  
진짜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햇살이 아직은 따갑던 지난 초가을,  
대구에서 태어나 오랜 시간 이 도시에서 살아온 제가  
어느 골목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시간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당혹감이, 잠시 후엔 아련함이,  
계속 걷다 보니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멀리서 보면 알록달록 화사한 옷을 입고 있는 동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스러져가는 지붕과 담장들-  
상처를 안고 있지만 정겨운 복현1동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 운이 좋게도 저는 이 귀한 시간여행을  
20대 청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을 맞잡고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보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보고  
감탄과 경외로, 또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복현1동 '피란민촌'을 기록했습니다.

'복현타작'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좋은 카메라를 가진 것도, 사진을 많이 찍어본 것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과 사려 깊은 눈으로  
곧 사라질 마을을 정성껏 담아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그곳이 어디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래될수록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고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현타작 길잡이  
현숙경 올라쿠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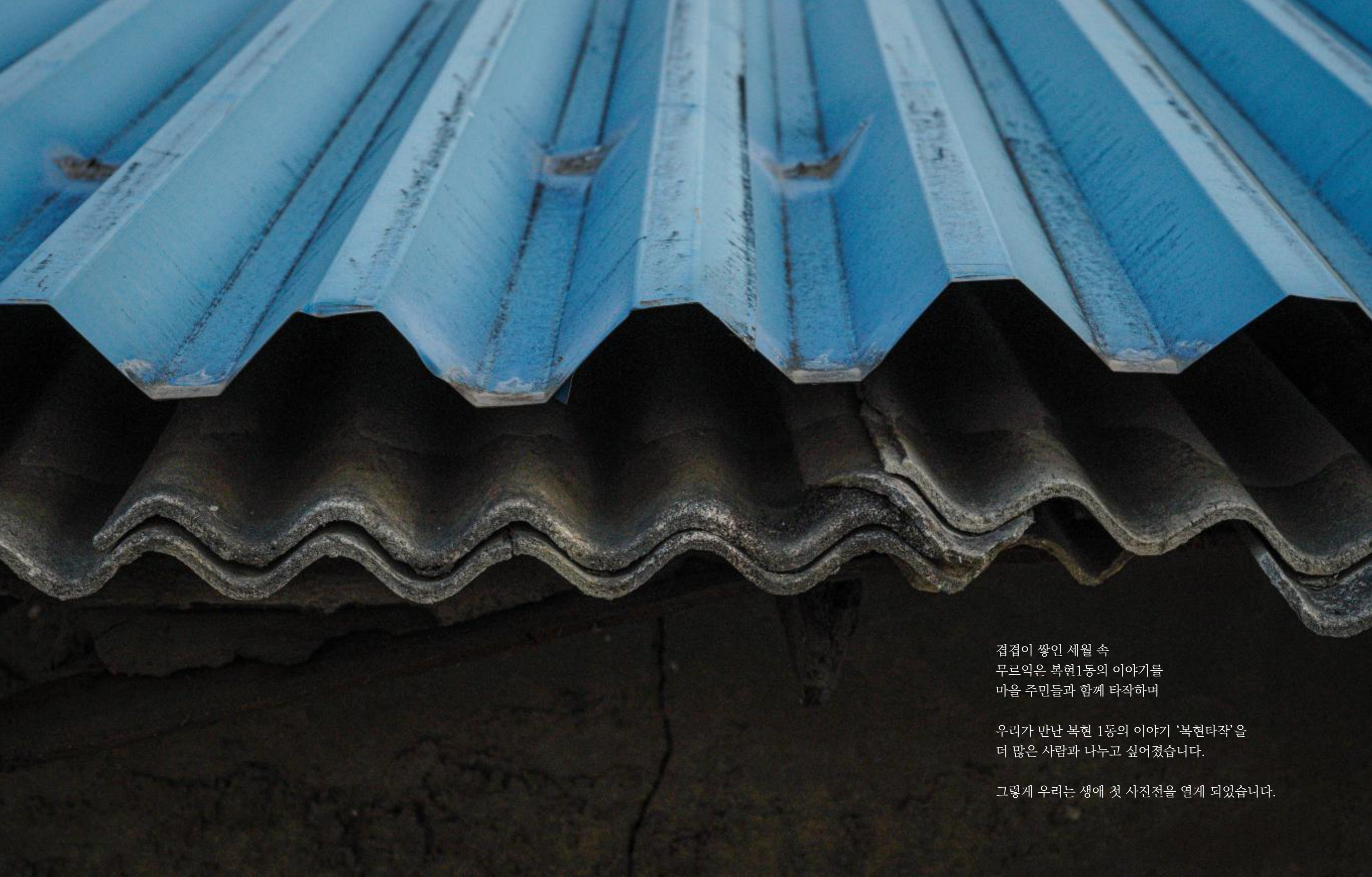












겹겹이 쌓인 세월 속  
무르익은 복현1동의 이야기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타작하며

우리가 만난 복현 1동의 이야기 '복현타작'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애 첫 사진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피란민촌, 오늘의 기억을 담다**  
**복원1동 마을기록 사진전**

2021년 1월 18일 - 29일  
 대구 북구청 본관 1층 로비

주최 대구광역시 북구청  
 주관 복원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획 올타쿠나 X 뷰티인사이드  
 사진 복원타작 X 문전성시  
 그림 정효진





아미지 아미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 이 능숙

북한(동) 도심재생 뉴딜사업은  
넘치는 열정과 참여, 전문적 기량이 결합하여  
전국 최고로 동네로 우뚝 설 것임을 인정합니다!  
화이팅! 팀원 모두 감사합니다 2021. 1. 18 북구청장  
이대식

피란민촌  
역사가 되다!  
- 홍우광 훈

과거의 역사  
현재에서 미래로 기억 되길  
- 북구청장 강정문 -

기억 그 길에  
서다!

아파트 들어서도  
계속 정겨운 마을로 보겠조?  
북한도착임 ^^

오래 볼수록 사진 너머  
말뚝에서 거리에서  
생겨있는 사연. 수천사람들의  
소중하고 빛나는 감성의 향기가  
인하게 배어나오는 듯 합니다.  
제 마음에도 그대로 남을게요.

개미는 44년도!



들여사며 경을사주면  
외교항정 비문(정겨운 모습)  
'홍기.'

주민들이 담아낸  
사진 속 마을의 온기가  
오래 오래 전해지길 ♡

- 율타쿠나 현숙경

시간이 흐르는 길  
북한동을 기억해 주세요.  
북한선녀 김연호 ...





이 순간을 가슴이 담고  
잊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내 기억속 복현동  
역사속에 사라져도  
내 마음에 영원히...  
-오른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김은정

나도 너처럼  
강할까?

아픈 기억도 소중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짝하면서 가슴 시원 기억  
잘 보존해주세요요~

피라미드  
우리의 기억은  
당다!  
Sol Flower



복현1동의  
소중한 기억과  
작품가 풍은 추억으로  
남김바랍니다  
- 행정국장 2 김로 -

주민들과 함께 한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지신준

자꾸 보니 점점고  
자세히 보아 예쁘다  
복현동이 그렇다  
- 장경영 -



복현 대계성 촬영!

슬물길 따뜻한 봄은  
그이 간직리드록...  
북구이대 유병철

함께 산기안은 도시 만류 쿠세로  
K.H.





내 다음독에 오래기억 드는  
피란민촌...  
- 김솔잎 -

추억은 영원히 잔잔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기억  
하러 화이팅!  
김사육

북현동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주름살에  
많이 정들었습니다.  
2021년도 하이팅!  
- 재선 -



기억하는 마음과 정성  
아름답습니다 ♡  
- 대전에서 온 김이 -

작지만 아름다웠던  
골목길을 기억하겠습니다.  
TR.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추억을 안고 명원히.....  
강화원씨

오랜 세월만큼  
아름다운 작품은  
엄사슴!!  
뉴딜 화이팅!!  
김대성





북천1동을 밝히는 사람들  
그림 정효진



# 북현타작

우리마을 사진집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처



길잡이

현숙경

진행

최서현

사진과 글

북현타작 식구들

백명숙 김기숙 장화선 정정순 전미희 조민정

최서현 현숙경 이주은 김솔잎 이현민 장준원

그림

정효진

디자인

올타쿠나 현숙경

인쇄

대동출판인쇄

펴낸곳

올타쿠나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